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의료생명공학과	이름	박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Shippensburg
파견대학	Shippensburg University	파견기간	2019 Fall – 2020 Spring
귀국여부	COVID-19로 인해 예정보다 일찍 귀국하였습니다.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Shippensburg University는 미국 동부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으며 주변에 차로 몇 시간 이동해야 하기는 하나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의 도시가 있습니다. Shippensburg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Harrisburg International Airport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Harrisburg International Airport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소 1번 경유를 해야 합니다. Shippensburg University의 학생들은 대부분 백인이며 동양인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학교 내에는 학생증만 있으면 무료로 이용 가능한 헬스장, 우리 학교의 학생회관 같은 건물인 CUB 내에 있으며 오락 등을 즐길 수 있는 Red Zone 등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으로 나가면 주택가이며 음식점과 술집이 없지는 않지만 15분 이상 걸어야 합니다. Wibs라는 작은 클럽이 있기는 하나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p>
2019-2학기 수업	<p><b>American Popular Music:</b> 미국의 팝송을 즐겨 듣는 편이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흥미로운 강의일 것 같아 신청했으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국의 옛날 가요들부터 배워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께서 저와 같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한 이 노래들을 잘 모른다고 저를 격려해주셨습니다. 학기 후반이 되어서야 제가 들어보았거나 아는 팝송들을 배웠습니다. 교제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필요는 없었지만 Pearson의 Revel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과제를 제출해야 해서 가입을 위해 \$74.19을 내야 했습니다. Revel을 통해 교제를 읽을 수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까지 읽고 Quiz를 푼 다음 학생들과 정해진 주제에 관해 토론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제를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힘들었습니다. 시험은 총 3번이었으며 음악을 듣고 이에 대해 맞추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예상문제를 주시고 나올 음악 또한 알려주셔서 어렵지는 않았습니다.</p>

**General Psychology:** 저는 Troy Samantha 교수님께 강의를 들었는데 교수님마다 강의 방식이 다르시겠지만 저에게는 매우 만족스러운 강의였습니다.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교제 내용을 정리한 PPT를 보여주셨는데 이 PPT의 내용을 따라 적고 후에 정리하면서 공부하였더니 쉽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종종 강의 도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관련된 실험이나 심리테스트를 하셨는데 이를 통해 쉽게 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재미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Group Quiz라고 4~5명의 학생이 모여 강의 시작 전 미리 교제를 읽고 Quiz를 쳤는데 같이 Quiz를 치는 학생들은 매번 무작위로 정해졌습니다. 총 9번 쳤으며 가장 낮은 Quiz 점수는 최종 점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Group Quiz 때문에 교제를 필수로 구매하거나 대여해야 했습니다. 시험은 4번으로 다른 강의에 비해 많이 치는 편이었지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과제로는 초반에 배우는 적절한 논문 찾는 법과 관련해 문제를 푸는 과제, 뇌의 도면으로 뇌의 구조를 만드는 과제, 교제에 있는 내용과 관련한 논문을 찾고 이를 정리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논문을 정리하는 과제가 어려웠지만 교수님께서 Tutor를 소개해주시고 이에 대한 지침도 제공해 주셔서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과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Introduction to Academic Writing:** 이 강의 또한 여러 교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제가 수강한 강의의 교수님은 이제 Shippensburg University에 계시지 않으셔서 따로 성함을 적지는 않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제는 분철 자료여서 다른 교제에 비해 비싸지 않았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Quiz를 보기 때문에 미리 교제의 정해진 부분을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Quiz가 어렵지 않았고 Quiz를 볼 때 교제 내용을 정리한 공책을 참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강의 내용은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과제로 총 5개의 Writing을 작성하였는데 과제가 다른 강의의 과제를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Writing은 draft를 작성한 후 교수님의 comment를 읽고 1주일 뒤까지 수정해 final을 제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통해 영어 글쓰기 실력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자신의 글에 대한 평가로 Writing Reflection과 Grading Reflection을 작성해야 했는데 어느 정도의 분량만 적는다면 수월하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은 Final 한 번으로 이 또한 정해진 시간 내에 Writing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때까지 쓴 Writing에 대해 생각해보고 쓰는 것이라 어렵지 않았습니다.

**Microbiology:** 대학에서 Microbiology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2분 계시는데 저는 Marcie Lehman 교수님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미국 오기 전 병원미생물학을 배워서 강의가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으나

	<p>미생물의 학명을 외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도 미생물의 학명을 외웠었지만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힘들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매우 친절하셔서 질문할 때마다 자세히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주 실험이 한 번씩 있고 실험 파트너와 함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과 달리 실험도구가 풍부하고 둘이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험 참여 기회가 많아 좋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 때 발견한 미생물 중 하나를 골라 이 미생물로 여러 실험을 진행한 다음 이 미생물의 학명을 알아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또한, 무작위로 미생물을 골라 이 미생물을 발견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하였는데 이때 예비 보고서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Lab Quiz는 3번 있었습니다. 매주 Quiz가 있었는데 종종 Group Quiz로 보기도 했습니다. 가끔 Pearson Mastering을 통해 Quiz를 풀어야 했는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했습니다. 시험은 총 3번이었습니다.</p>
<p>2020-1학기 수업</p>	<p><b>Art Appreciation:</b> Michael Campbell 교수님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강의를 있지만 교수님께서 정해주신 강의 시간에만 출석하면 되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시간에 미술적 개념에 대해 배우고 이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과제의 작품성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잘 이해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이라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Quiz는 5번으로 D2L을 통해 오픈 북으로 보았습니다. 강의의 하나로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COVID-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p> <p><b>Genetics:</b> 이미 한국에서 배웠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따라가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강의 시작 후 5주간 교제에 있는 문제를 풀어 제출해야 했습니다. 실험은 매주 한 번 있었으며 실험 파트너와 함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로 초파리를 이용해 실험하였습니다. 교배하고 싶은 초파리의 표현형을 골라 교배하고 이에 관한 결과를 각자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COVID-19로 인해 PPT만 제출하였습니다. 시험은 총 3번 있었고 쉬운 편이었습니다.</p> <p><b>Histology:</b> 한국에서 해부학을 수강하고 좋은 점수를 받았을 때만 수강할 것을 추천합니다. 실험이 매주 한 번 있긴 하나 현미경으로 절편을 관찰해 강의를 통해 배운 조직의 형태를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Quiz가 2번 있고 시험은 Practical Exam 3번, Lecture Exam 3번으로 총 6번입니다. Practical Exam은 PPT의 사진을 보고 이에 대해 맞추는 것으로 Quiz 방식 또한 같습니다. Lecture Exam은 강의에서 배운 조직의 역할이나 이에 관련한 질병 등을 맞추는 것으로 서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어려웠습니다.</p>

	<p><b>Immunology:</b> 4학년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라 매우 어려울 것 같아 걱정하였으나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교수님께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다만, 강의 진도가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매주 Quiz를 보았으나 가끔 Group Quiz를 보았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2번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COVID-19에 대한 논문이나 기사를 바탕으로 쓰는 보고서 하나와 교수님께서 정하신 논문을 읽고 이에 대해 답하는 보고서였습니다. 시험은 총 3번이었고 어렵지 않다고 느꼈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개강 전 주에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였습니다. 이때, 교환학생들을 만나고 학교 시설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벤트가 개강 전에 있으므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강 후 Welcome picnic에서 교환학생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 외국인 교수님을 만나 뵈 수 있습니다. CUB에 International Student Lounge가 있는데 이곳에서 종종 외국인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간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1달~2달에 한 번씩 Coffee Chat이라고 외국인 학생들끼리 만나 커피를 마시고 간식도 먹으며 얘기를 나누는 행사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에서 등산을 가기도 하고 할로윈 파티를 하기도 하는 등 외국인 학생들끼리 만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모르는 점이 있다면 International Office의 Mary에게 문의하면 됩니다.</p>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p>날씨</p>	<p>날씨는 아산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휴강을 자주 한다고 들었으나 제가 있을 때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p>

<p>안전</p>	<p>학기 중에 총기 사건으로 학생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로 총기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학교 내에 경찰서가 있고 International Office에서도 교환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밖 시내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주변에 있는 집들 또한 대부분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p>
<p>숙소</p>	<p>학교 기숙사 (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 ) 기타 ( )</p> <p>학교 외부에 있는 아파트형 기숙사 Stone Ridge Commons 2인실에 거주하였습니다. 4인실, 2인실 모두 가격이 같아서 2인실로 선택하였습니다. 총 4층까지 있으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2인실에는 방 두 개, 거실, 부엌, 화장실이 있습니다. 부엌에는 가스레인지 4개와 오븐이 있어 요리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화장실은 건식이었습니다. 학교 외부에 있기는 하나 캠퍼스 바로 옆에 있어서 통학할 수 있었습니다. 층마다 Laundry room과 Study room이 있고 세탁기 \$1, 건조기 \$1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층에 헬스장과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헬스장은 작아서 비가 오는 날 아니면 Ship Rec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하였습니다. 다목적실에 \$1나 \$5를 25센트 동전으로 바꿀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를 교환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실에는 TV, 자판기가 있습니다. Study room과 헬스장, 다목적실에 들어가기 위해선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Michelle이 이메일로 알려주었습니다.</p>
<p>식사</p>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 ) 기타 ( )</p> <p>Meal Plan이나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면 식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일부러 부엌이 있는 Stone Ridge Commons를 선택했습니다. 과제가 많거나 시험이 있어 시간이 없는 경우에만 학교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고 웬만하면 만들어 먹었습니다. Reiser Hall과 Kriner Hall, CUB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저는 Kriner Hall을 제일 많이 갔습니다. 요리하는 데 필요한 음식재료는 대부분 Walmart에서 샀는데 Walmart까지 가는 버스가 1시간마다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Stone Ridge Commons 근처에도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Walmart에서 Stone Ridge를 갈 때 버스 기사 아저씨께서 Stone Ridge 바로 앞에 내려 주셔서 편하였습니다. 차로 한 두 시간 떨어진 거리에 H-mart라는 한인마트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나</p>

	아시아 음식에 관심이 많으신 심리학과 교수님 차를 타고 종종 가서 한국 음식재료를 살 수 있었습니다. Shippensburg 시내에 Rice N Pho Vietnamese라는 베트남 음식점이 있는데 맛있고 친절하십니다. 국물이 있는 음식이 먹고 싶을 때 가면 좋습니다.
교통	학교에서 Harrisburg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다고는 들었으나 이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Harrisburg까지 가야 할 때는 차가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갔었습니다. Harrisburg까지 차로 이동해 Harrisburg Transportation Center 등에서 버스나 기차 등을 이용해 주변 도시로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Harrisburg Transportation Center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그레이하운드이며 메가버스 정류장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157만원 + 편도 112만원	왕복 표를 구했으나 취소되어 한국으로 가는 편도 표를 구매함
Fees	2학기 Tuition Fee 218만원 1학기 Tuition Fee 204만원	
보험료	ISO insurance 35만원	
숙소	Stone Ridge Commons 684만원	보증금 제외
식비	한 달 50만원	
교통비		
책값	2학기 42만원 1학기 10만원	
기타1		
기타2		
합계	1912만원	여행 다니며 든 돈은 제외

## 5. 출국 전 준비사항

TOEFL 성적이 충분하다고 혹은 이미 교환학생에 합격했다고 영어공부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Speaking 실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TOEFL을 친 후 영어공부를 잘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미국 현지인들과 얘기할 때 그들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때 주눅이 들지 않고 더욱더 부딪혔다면 Speaking 실력을 현저히 늘릴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저는 제 성격상 그러지 못하고 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본인이 사람들에게 계속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격이라면 미리 영어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현지에 와서 사람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영어공부를 하고 오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파견을 위해 준비하다 보면 International Office에서 여러 자료를 보내줍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니 대충이라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파견 전 미리 택배를 보낼 때 택배를 보낼 주소도 있었습니다. 항공 택배보다는 선박 택배가 훨씬 싸나 오래 걸리므로 미리 짐을 싸서 자료에 나와 있는 주소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교환학생을 준비할 당시 먼저 다가와 주는 사람이 없으니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으면 본인이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다가와 주는 사람들과 오래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서 지낸 시간이 많았고 그때마다 큰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서 교환학생 또한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생활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학기마다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플 때 Naugle Hall에 있는 Etter Health Center에 가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두 추억인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때 힘들었던 것을 알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다시 교환학생에 지원할 것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International Office가 있는 Mowrey Hall



CUB (Ceddia Union Building)



Stone Ridge Commons



Kriner Hall



Health Center가 있는 Naugle Hall



Shippensburg 시내